*SRT하차 시 갖고 내리셔도 됩니다. '한 장 여행'과 함께 근사한 추억 만드세요!

가볍지만 속 깊은 Travel Mate

완주 한 장 여행

에디터 **정상미** 사진 **이효태** 삽화 **조성흠**

완주하길

전북 완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소도시? 시골? 저마다 경험한 것이 다르기에 이미지 또한 다르겠지요. 에디터가 만난 완주는 이웃한 전주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매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탈의 아픔을 지닌 삼례의 양곡창고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는 문화예술촌으로 새 옷을 입었고, 도시의 청년들은 완주 저 안쪽에 작은 상점을 내어 소통방통한 하루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 멋진 도시를 더욱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바라며, 마음 담아 눌러쓴 편지 한 장 같은 〈완주·한 장 여행〉을 드립니다.

한 장 여행 사용법

완주 전체 지도는 크게 4개 권역으로 색을 지정해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있는 곳이 운주면이면 하늘색의 북부권에 속한 것으로, 해당 권역의 스폿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관광명소 외에 에디터가 직접 들른 맛집과 카페들도 소개하니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RT익산역에서 완주군청까지 차로 30여 분 소요됩니다. 에디터는 렌터카를 이용했으며, 전주역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주·한 장 여행〉은 SRT매거진 웹진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예정 2022.1.1~ www.srtmagazine.co.kr

웹진바로가기

지면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또 다른 명소들도 확인해보세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전체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wanju.go.kr/tour
완주군 문화관광과 063-290-2624

지도 내려받기

*주소에서 '전북 완주군'은 생략되었습니다.

호남의 금강산이 여기 있소 | 북부권 운주·화산·비봉·경천면

되재성당

완주 시내에서 북으로 한참을 달리자 경천저수지를 지나 농가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드러난다. 때아닌 이방인을 반기는지 외양간 소들의 울음소리가 음매, 음매 우렁차다. 이렇게 깊은 속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지어진 한옥 양식의 성당이 자리한다. 현재의 성당은 6·25전쟁으로 불탄 건축물을 복원한 것으로, 여전히 나무 창틀과 기둥 사이로 옛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려올 것만 같다. 화산면 승치로 477(문화재 정식 명칭은 '되재성당지'입니다)

화암사

좁았다가 넓어지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 어여쁜 산길을 오르자 문득 땡그랑, 땡그랑 풍경 소리가 들려온다. 화암사 우화루,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바깥에서는 기둥을 세워 누각처럼 보였던 우화루가 안쪽에서는 1층집으로 보인다. 화암사는 신라 문무왕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극락전과 우화루는 조선 초기에 세워져 작고 네모난 경내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경천면 화암사길 271 063-261-7576

대둔산도립공원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 푸른 산등성이에는 동심바위, 장군봉으로 불리는 기암괴석이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절경을 이룬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정상의 마천대까지는 약 1시간, 산행의 백미로 손꼽히는 삼선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삼선바위 암벽에 세워진 삼선계단은 길이 36m, 경사 51도에 127개 철 계단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의 제일 가는 핫 스폿이기도 하다.
대둔산케이블카(왕복) 대인 1만1500원, 소인 8500원 운주면 산북리 산 23-30 063-263-6621~2

화산애빵굿

경천저수지 앞에 자리한 화산면의 작은 빵집. 되재성당에서도 가깝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하는 마을 휴게소이자 무인카페. '사장님이 바빠요'라는 안내문구를 보니 욕심 없이 시원시원한 운영 방식이 엿보인다. 탕종 단팥빵, 호박머핀, 마들렌, 커피 음료 등을 맛보고 결제는 현금이나 계좌입금 중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화산면 화산로 702

ANOTHER SPOT
천등산(운주면), 천호성지, 힐조타운관광농원(비봉면), 경천저수지(화산면),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경천면)

완주는 호반의 도시였어! And 고산면에 정착한 청년들 이야기 | 중동부권 고산·동상면

고산미소시장

커다란 소 조형물이 반겨주는 고산미소시장. 미끄럼틀도 달려 있어 아이들이 소를 타고 노는 기분도 들 것 같다. 질 좋고 맛있기로 소문난 완주한우협동조합의 '고산미소한우'를 맛볼 수 있는 정육형 식당도 시장에 자리한다. 조합은 2015년부터 수익금 일부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해 기탁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관광형 테마장터로서 특산물, 먹거리, 체험공방 프로그램도 이용해볼 수 있다.
고산면 남봉로 134 063-262-0119

고산향교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인 고산향교는 1397년(태조 7)에 창건된 이래 소실과 복원을 거듭했다. 현재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삼문 등의 부속건물이 남아 있으며, 대성전에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고 쓴 나무패를 가운데 두고 5성, 송조 4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고산면 고산로 147-23

대아호

완주는 호반의 도시가 아닌가. 크고 작은 호수(저수지)가 경천, 대아, 동상, 구이 등 한둘이 아닌 데다 저마다 이방인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큰 힘이 담겨 있다. 732번 지방도를 따라 달리면 운암산 짙은 산세와 어우러진 대아호가 시선을 압도한다. 강처럼 거대한 대아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대아댐은 1922년 건설한 댐이 노후하여 하류 지역에 새롭게 건설한 것으로 5464ha/㎥의 저수량을 자랑한다. 고산면 대아저수로 512-41, 한국농어촌공사 대아호관리소

대아수목원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대아수목원은 150ha 규모에 산림문화전시관, 열대식물원, 산림생태체험관, 표본수원, 천연기념물 후계목동산 등 주요 시설물이 자리한다. 생종은 물론 식재종, 원예종 등 2000여 종이 넘는 식물이 자생하는데 봄날이면 대아수목원, 도서관, 전시관, 쉼터로 이용되는 숲문화마루 앞에 튤립이 지천을 이룬다.
9:00~17:00 (1월 기준) 무료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063-243-1951

수만리마애석불

트레킹 코스로도 그만인 수만리마애석불 찾아가는 길. 입석마을 입석교 입구에 '마애석불 1.42㎞'라고 쓰인 표지판을 만나면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거대한 자연 암벽에 새겨진 석불좌상은 풍만한 얼굴에 눈, 코, 귀, 입도 모두 큼직하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옷 주름 하나까지 세심해 만든 이의 정성이 놀랍기만 하다. 동상면 수만리 산 4-3

깜빠뉴

고산향교 홍살문을 지척에 두고 구수한 냄새가 객을 유혹한다. 이제 문 연 지 두 달이 되었다는 깜빠뉴. 때마침 들어온 손님 이야기를 들으니 벌써 소문이 자자해 늦게 오면 빵을 구하지 못한다고. 어머니 박창숙 씨는 오랜 기간 아이들을 위해 천연발효종으로 프랑스 시골빵을 만들어왔다. 그 솜씨가 깜빠뉴를 열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 딸인 노유진 씨가 함께해 마을 빵집으로서 점점 성장해나가는 중이다. 고산면 고산로 147-9

청년이 있는 마을

우리 지역의 미래는 누구일까? 어린이와 청년이다. 지역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찔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청년들이 기꺼이 머물러 살고 싶은 곳으로 택한 고산면의 오늘을 보고 배워야겠다. 지역과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빌언덕 중개사무소'가 고산미소시장에 지난해 11월 개소했다. 그림책서점인 감나무책방과 색소 없이 만든 마카롱을 맛볼 수 있는 달달마카롱 등 청년 점포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림보책방, 베르 등 고산면의 책방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자.
고산면 고산로 100, 림보책방 / 읍내길 13, 베르
*감나무책방과 달달마카롱은 고산미소시장 내

ANOTHER SPOT
고산자연휴양림, 무궁화오토캠핑장, 놀토피아(고산면), 동상운장산계곡, 장군봉 해골바위(동상면)

법정문화도시 완주가 예술, 자연, 일상과 소통하는 법 | 중서부권 삼례·봉동·용진읍

삼례문화예술촌

지난해 1월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완주의 저력과 가능성에 '문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 일제강점기에 지은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수탈의 상징인 양곡창고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역사적 의미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하고 절묘한 공간으로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0:00~18:00 삼례읍 삼례역로 81-13 070-8915-8121

삼례책마을

은빛 억새 출렁이는 만경강 가까이 삼례책마을이 자리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더불어 되살아난 양곡창고는 주민들 간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와 문화를 잇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장에 닿을 듯한 높다란 책장의 고서부터 주민들의 손때 묻은 헌책을 만난다. 이 밖에 북하우스, 한국학문헌 아카이브, 북갤러리도 이용할 수 있다. 10:00~22:00 삼례읍 삼례역로 68
063-291-7820

만경강과 비비정

'달빛 아래 백사장, 고요히 내려앉아 쉬어가는 기러기 떼'를 뜻하는 '비비낙안(飛飛落雁)'은 비비정(정자)에서 바라보는 만경강 일대의 풍경을 가리킨다. 호남의 젖줄로 일컬어지는 만경강 구 철교에는 폐기차를 활용해 레스토랑, 카페로 운영하는 비비정예술열차가 있고, 일몰이면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만경강 풍경은 무엇보다 으뜸이다. 현재는 비비정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삼례읍 비비정길 73-21, 비비정예술열차

아줌마국수집

완주5미에 국수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곳곳에 이렇게 국숫집이 다양하다니! 봉동생강골시장에 68년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국수부터 아줌마국수, 시골집국수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에디터가 방문한 아줌마국수집은 물국수와 비빔국수 딱 두 메뉴만 판매한다. 한 모금 마시면 개운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물국수와 매콤한 양념의 비빔국수에 참기름을 더해 한 그릇 맛있게 비웠다. 10:00~18:00 용진읍 완주로 180

금와습지생태공원

"개구리 자세가 좀 거만한 걸?" 동행한 포토그래퍼 실장님의 말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개구리는 금개구리라고요. 금와습지생태공원은 2016년 만경강 주변의 삼례 하수처리장과 직접 연계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제로 조성되었다. 약 9만㎡ 면적에 소나무 숲, 편백나무 숲, 금개구리 동면지, 생태습지 등이 자리한다.
삼례읍 후정리 162-3

밥은 먹고 다니니?

그림책미술관 고앞, 새참수레는 완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슬로푸드 뷔페 레스토랑이다. 여전히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끼니가 가장 걱정이고 중요한 어르신들이 차린 밥상이니 완주 오면 꼭 들러볼 일이다. 이 외 비비정마을에서 운영하는 농가레스토랑도 멀지 않다. 세련된 현대식 건축물에서 즐기는 푸짐한 시골밥상, 맛좀 볼까?
11:00~14:00 삼례읍 삼례역로 73, 새참수레 063-261-4279 11:30~16:30 비비정길 26, 비비정농가레스토랑 063-291-8609

그림책미술관

귀여운 아기 요정을 만나러 가볼까? 지난해 봄 개관한 그림책미술관에서는 영국 동화 작가 G. 그레이브의 미발표 원고와 삽화를 바탕으로 한 〈요정과 마법의 숲〉전을 관람할 수 있다. 1940년경 완성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에 소개되지 못한 작품을 한국, 완주에서 만날 수 있다니 세상의 일은 요정의 일처럼 신비롭다.
무료 삼례읍 삼례역로 48-1
063-291-7820

완주 딸기

차가운 겨울과 달콤한 딸기는 환상의 궁합이다. 삼례읍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완주 딸기는 아기 주먹만큼 크고 너무도 달콤하다. 알고 보니 완주는 딸기로 유명했다. 참고로 완주9품에는 곶감, 생강(국가농업유산 지정), 딸기, 대추, 양파, 마늘, 수박, 배, 토마토가 있으며, 용진농협·완주로컬푸드직매장(모악·둔산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완주9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합문화지구 누에

완주군청사 뒤편으로 탐스러운 하얀색 누에 조형물이 눈에 띈다. 일대에는 1987년부터 호남 잠종장이 위치해 누에씨 생산부터 공급, 양잠기술 등을 연구해왔는데, 부안에 누에타운이 조성되며 이전을 하게 되었다. 한때 철거 위기를 겪기도 한 호남 잠종장 부지와 건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 덕에 2016년 공간 재생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되었다. 누에살롱·아트홀에서 크고 작은 체험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10:00~18:00 용진읍 완주로 456-19 063-246-3953

ANOTHER SPOT
만경강길, 신천습지,삼례전통시장·청년몰(삼례읍), 생강골전통시장, 생강마을(봉동읍), 두억행복드림마을(용진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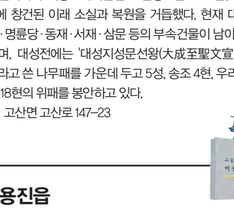
BTS도 다녀간 완주핫플, 누구나 반할 수밖에! | 남부권 소양·상관·구이·이서면

구이저수지

모악산 자락 동쪽에 어여쁜 호수마을이 자리한다. 2014년 완주군이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개발한 전원마을로 단아하고 우아한 집들이 그림 같은 구이저수지를 마당처럼 끌어안고 있다. 한낮은 산뜻하고, 해 질 녘은 운치 있어 좋은 길. 구이저수지는 새누공원 앞자락에 자리하며 가까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과 함께 돌아보기 좋고, 수변 덱이 조성되어 가벼운 산책 코스로도 그만이다. 구이면 모악호수로 일대

오성한옥마을

위봉산, 서방산, 종남산, 원등산이 병풍처럼 에워싼 오성한옥마을은 마치 큰 새의 둥지에 깃든 것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2019 서머 패키지 인 코리아' 영상과 화보 촬영지로 큰 화제가 된 마을은 한옥을 매개로 한 아원·소양고택, 플리커책방, 두베카페 등이 자리해 사시사철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소양고택



화심순두부거리

국수만큼이나 완주 곳곳에서 눈에 띄는 맛집에 순두부식당을 빼놓을 수 없다. 완주5미에 순두부백반이 속할 정도로 군을 대표하는 맛이랄까. 이 중 소양면에는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포진한 화심순두부거리가 자리하니 점심, 저녁 어느 때든 꼭 한번 들러보자.
소양면 일대

카페라온

배산임수, 명당의 기운을 카페라온에서 받아볼까.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 그대로 전면의 넓은 통창에는 저수지 오성제가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지고, 초록의 숲이 빽빽이 카페라온을 감싼다.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하며 오성한옥마을에서 차로 3분 거리다.
소양면 오도길 64 0507-1321-6896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모악산점

왜인지 이곳에 갈 때마다 에디터는 기분이 좋다. 아마도 이상적인 목표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어 흐뭇한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 처음 로컬푸드를 시작한 곳으로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모악산점'의 모든 상품은 완주군민이 완주에서 생산하고 출하한 것들이다. 떡, 빵 등의 간식부터 화분, 딸기, 호박, 각종 건나물까지 장바구니에 행복을 담는다. 1층은 직매장, 2층은 레스토랑으로 로컬푸드로 만든 각종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9:00~21:00 구이면 모악산길 95 1600-0125

위봉폭포

완주를 처음 여행한다면 '소양면'만 제대로 둘러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다. 완주 9경에 속하는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이 모두 소양면에 있고 바로 지척이기 때문. 오성한옥마을 위 위봉산 허리춤에 자리한 위봉폭포는 높이 60m의 2단 폭포로 여름날의 폭포 소리는 시름을 날리고, 한겨울에는 찬바람 속에 수묵담채화를 보는 듯 장관을 이룬다. 폭포 바로 맞은편이 위봉산성인데 BTS가 방문한 뒤 BTS산성으로도 통한다. 위봉사는 위봉산성 서문에서 약 300m 거리에 자리한다. 소양면 대흥리 산 1-32, 위봉폭포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박물관은 기획전시실, 발효숙성실, 복합문화공간, 유물전시관, 상설전시관 등에서 5만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시대별 술문화, 술 광고 변천사, 우리나라 전통주부터 세계 술을 총망라한 역사관까지. 애주가라면 '술'과 얽힌 에피소드가 한둘이 아닐 터, 박물관의 곳곳은 방긋 미소를 짓게 하는 콘텐츠로 발길을 멈춰 세운다. 10:00~17:00(1월 기준)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063-290-3842

공기마을편백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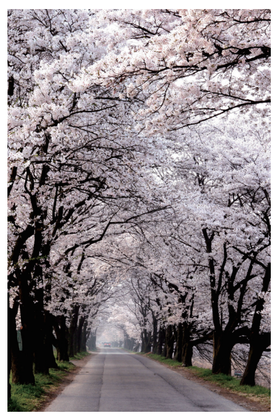
밥공기를 닮았다 하여 공기마을. 아주 오래전 주민들이 하나 되어 마을을 바라보는 경각산 한 줄기에 편백나무를 심었다. 현재는 편백나무 10만 그루, 잣나무 6000그루, 삼나무, 낙엽송, 오동나무가 군락을 이루면서 공기가 좋아 공기마을이란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통한다. 상관면 죽림리 산 214-1

완주패러글라이딩

완주 구이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은 형상의 모악산과 고래의 등에 솟아난 뿔처럼 힘찬 기상의 경각산이 마주 보고 있다. 경각산은 높이 660m로 구이면 광곡리와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에 걸쳐 있다.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날아오르면 경각산 아래로 펼쳐지는 구이저수지, 모악산의 풍요로운 산세가 한눈에 펼쳐진다.
구이면 덕천리 420-14, 전북에어포스스쿨
063-223-3994

송광사 벚꽃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앞에서는 그저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법이다. 천년고찰 송광사로 향하는 2㎞가량의 도로 양옆으로 꽃대궐, 아니 꽃터널로 오가는 이들을 맞이한다. 너무도 짧은 봄날, 피어난 꽃을 만끽하며 송광사에 당도한다. 한편 송광사는 김제, 전주, 익산, 완주에 걸친 아름다운 순례길 2코스 시작점으로 순교자의 묘지와 피정의 집이 있는 천호성지까지 27.1㎞,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 아름다운 순례길, www.durunubi.kr



산속등대복합문화공간

오랜 기간 방치된 제지공장이 2019년 5월, 교육형 예술놀이터를 표방하는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어뮤즈월드, 아트플랫폼, 슨슨카페, 산속등대의 랜드마크인 등대와 '하늘을 헤엄치는 아기 흰수염 고래'까지, 전시·교육·체험·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다.
10:00~19:00 어른·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 소양면 원암로 82
063-245-2456

ANOTHER SPOT
초남이성지, 이서불고기마을(이서면), 원등사, 대승한지마을(소양면), 상관저수지(상관면), 모악산도립공원, 구이안덕건강힐링마을(구이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받은 완주 숙소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숙박, 쇼핑 등 관광접점 대상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서비스, 위생, 안전 등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진다. 2021년 두 군데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완주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소는 6곳이다.

행복드림한옥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에 너른 잔디마당을 갖춘 한옥스테이. 때에 따라 숲·공예 체험과 전통놀이가 진행된다. 용진면 봉서안길 181-21
063-247-0050

여림재

공기마을편백숲이 위치한 상관면에 모던하고 감성적인 분위기의 여림재가 자리한다. 소양고택에 이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로 2021년 신규 지정되었다. 상관면 죽림편백길 96
010-8375-0258 www.yeolimjae.com

모악산모텔

숙소 주변이 모두 핫플. 모악산 산행부터 로컬푸드, 도보 3분 거리의 전북도립미술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이면 모악산길 104-10 063-222-2023

녹운재

오성한옥마을에 자리하며 1157㎡ 대지에 방, 대청, 마루 등으로 구성된 두 개의 독채 객실을 운영한다.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8
010-4450-6565 nocwoonjae.co.kr

대승한지마을

전원마을의 정취가 물씬. 묵을 수 있는 한옥 객실은 총 8개. 이 외에 한지체험관, 한지공예전시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소양면 복은길 18-4
063-242-1001 www.hanjivil.com

소양고택

고창과 무안의 유서 깊은 고택 3채를 해체하여 이축한 한옥으로 오성한옥마을의 대표적 핫플이기도 하다.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0507-1417-7941
www.stayhanok.com

사계절 축제

MARCH 달콤한 '딸기축제'
딸기 수확체험, 딸기 케이크 및 인절미 만들기, 딸기 화분심기 등 주요 행사와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완주에서 생산한 무공해 친환경 딸기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3월 중 삼례읍 일원

MAY 힐링 가득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
오성저수지 주변의 오성제 둑길과 한옥문화센터 앞 잔디광장, 한옥정자 인근에서 연주회와 명상체험, 숲길걷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5월 중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일원

AUGUST 아름다운 우리나라꽃 '나라사랑 무궁화축제'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문화행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품종 200여 종 중 180여 종을 전시하고, 무궁화 화분 나눔, 무궁화 해설,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 등을 개최한다. 8월 중 고산면, 무궁화테마식물원

SEPTEMBER 흥미로운 민속행사 '한우사랑&말문화 축제'
한우로 유명한 완주에서 열리는 민속 행사로 소싸움대회, 승마체험, 말 품종 전시, 마상무예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9월 중 화산면, 화산체육공원 일원

OCTOBER 완주군 대표축제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건강한 먹거리, 인문학적 문화요소를 결합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선도한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재미난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10월 중 고산면,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DECEMBER 완주9품 중 1품 '완주곶감축제'
자연숙성 과정을 거쳐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럽기로 유명해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으로 바치던 완주곶감을 테마로 한 축제. 다채로운 공연과 곶감 품평회,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 문화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12월 중 운주면 일원